

예수승천 대축일

(홍보의날)

기도서 P 305 A해

제1독서(사 도 1, 1-11)
제2독서(에 페 1, 17-23)
복 음(마 태 28, 16-2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 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3 5098 3 3201

□ 강론



「현대 교회의 의의와 그 사명?」

이 대 권 신부

녹음방초(綠陰芳草) 승화시(勝花時)에 즐거운 예수 승천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만천하 신자들은 다 함께 두손 모아 승천하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 대부분의 신자들은 야외미사에 참석하며 대자연의 속삭이는 신비속에서 자신의 생명의 신비와 교회 공동체로서 앞날의 쇠신되 나가야 할 방향에 더욱 더 심회를 다짐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예수승천을 계기로 「현대 교회의 의의와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주님의 선포를 마음깊이 간직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고 영생(永生)의 신비의 세계를 갈구하는 제이(第二)의 사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 집니다」(에페소 1장 22~23절)

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교회 공동체는 그 몸이요, 우리 인간은 그분의 지체로서 머리와 머리, 마음과 마음이 상통하는 한 신비체로서 성령이 활동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전진함을 통찰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적 교회는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고 제 2 바티칸 공의회 이후 10여성상에 걸쳐 성령의 영성 세계로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특히 오늘의 세계는 물질만능 이기주의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로서 정의, 평화, 사랑의 세계는? 영성(靈性) 생활은 고사하고 불신 부조리의 사회로서 인륜(人倫)의 세계는 아랑곳 없는 무질서 사회로 점점 변모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교회의 사명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달성하려는 그리스찬 사명감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때가 막두한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오28: 19~20)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현대 교회의 사명이요, 신비체의 지체인 우리네 신앙인들의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영성영역(靈性領域)인 것이다. 죄악의 공해(公害)에서 거처는 호흡에 잠겨있는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드높은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호응하려거든 「종으로서의 구세주」 빠스카 신비의 비결을 증언하신 하느님의 뜻에 의합한 아들 그에게로 되돌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전면(全面) 재현(再現)시키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세계로 전진하자!

<숲정이상당 주임신부>



비를 물고 오는 바람아!

비가 오지 않는다. 대지가 목이 타다 못해 말라 비를 어 지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크다. 작년 겨울에 내린 눈으로 보아서는 비가 올법도 한때, 좌우간 큰일이다. 기우제라도 지내야 할 것이다.

옛부터 농촌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에 비가 내리기를 비는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는 하지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모내기를 할 수 없고, 밭꼭식이 메마를 때, 왕 또는 지방관원이나 마을의 장이 제주(祭主)가 되어 비가 내리기를 빌던 제사이다. 이것은 하나의 풍속의 차원을 넘는 옛제도이다. 지금은 농사철을 기쁘해주던 하지의 개념이 한 달이나 빨라졌다. 그래서 더욱 기우(祈雨)의 마음이 아쉽다.

비가 내리려면 자연조건에 변화가 생긴다. 그 변화에 동물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어린이들은 밤늦도록 동네 교살을 이리 뛰고 저리 달리며 소리를 지른다. 신경통 환자들은 삭신이 쭈신다고 짜증이다. 평소애 골 잘 희죽거리던 미친 사람들은 그 도가 더욱 높아진다. 어쨌던 평소의 도를 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필요 이상으로 뛰고 소리지르는 모습을 보고 「날곳이」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러나 비는 왜야 한다.

나라에서는 지금 한창 「국풍 81」이 바람을 내고 있다 국풍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보았더니 <그 나라의 특유한 풍속> 이라고 적고 있다. 행사 내용을 보니 옛부터의 풍속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물라스케이팅 묘기에 보컬팀 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상당한 모양이다. 17m 높이에 200m 길이의 관관이 들어서는 것만으로 보아도 그 비용 또한 엄청난 모양이다. 어쨌든 風을 풍속아닌 바람으로 보고 싶다. 비를 물고 오는 젊은이들의 바람으로 말이다. (5월 27일)

숲 정 이 산책



도착 안 된 곳은 알려주소!

□ 홍보주일

「메스·메디아(대중 전달수단)에 관한 교회의 지침」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전해 주기 위하여 주 그리스도께 창설되었으므로 반드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며 동시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데에 메스-메디아(대중전달수단)도 이용하고 또 그것들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의 의무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구원 사업에 필요하고 유익한 범위내에서 모든 종류의 메스-메디어를 사용하고 소유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권리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내지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메스 메디아에 부여하여 인류 공영의 큰 기대와 하느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것은 특히 평신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메스-메디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충실히 실천에 옮겨야 할 윤리질서의 범위가 있다. 먼저 전달될 사건들의 내용을 각 메스 메디아의 특수성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전달에 수반하는 모든 환경, 즉 목적, 인물, 장소, 때 등을 참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달의 윤리성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 아주 새로운 윤리성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은 메스-메디아에 관계하는 모든 이가 그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올바른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시대에 날카롭게 논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인포메촌, 즉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을 신속하고 정직하게 공개 보도함으로써 각 사람이 사건의 진상을 완전하게 또 계속적으로 알게 되므로써만이 효과적으로 공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모든 이가 진구가 사회의 보다 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사람은 개인으로서나 사회의 일원으로서나 자자의 조건에 따라 알아야 할 일에 관한 보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도의 대상은 언제나 진실해야 하며 정의와 사랑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 외에 보도방법에 있어서도 윤리적이거나 하며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즉 뉴스의 취재와 전달에 있어서 윤리 법칙과 자자의 정당한 권리와 존엄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모든 지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오직 "건설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코린전 8:1)



홍보의 날은
서적 보급의 날인가?

「홍보의 날」은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작되었다. 예수 승천 대축일을 홍보의 날로 정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의무가 복음 선포이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고 명하신다. 때문에 홍보수단과 복음전파는 분리시킬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현대에 이르러 사회 홍보 수단이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를 일컬어 정보의 홍수시대, 대중문화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홍보수단의 발달로 인간의 지성은 날로 발전하며 역사나 문화의 형성은 보다 깊은 대중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홍보수단의 영향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들 역시 무책임하게 홍보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보수단에 대한 무지로 그 가능성을 복음선포를 위해 이용조차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홍보의 날」 행사라 하면 흔히 신문이나 서적 보급을 생각하나 보급보다도 중요한 것은 홍보수단에 대한 이해와 가치발견 및 그 활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마침 마다 매혜사의 한국 방문은 많은 홍보수단들이 집중 보도하자 마치 대한민국이 전부 가톨릭 신자인 것처럼 술렁거렸다. 그리고 교회기관에 신앙에 대한 안내, 인간 사랑에 대한 실천책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2천년전, 예수에 대해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알았듯이 오늘 그가 누구인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이 홍보수단의 일이다. 요즈음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 해도, 외딴 산골이라 해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갖지 않은 집이 드물다. 그들은 하루 3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라디오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누가 제작하고 있는가?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므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오늘 더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흥미나 지적 성장을 줄지도 모르나 우리에게 인간의 참 모습과 희망, 참된 생명까지도 알게 해주는가?

오늘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큰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신론과 물질주의이다.

이 사상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리고 만다.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아름다움과 도덕적인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기도 하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전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이를 신용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때문에 「홍보의 날」에 의의는 보급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비판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다.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 전주 분원〉

경향잡지를
보십니까?

1906년 처음으로 펴내 올해 10월 19일 꼭 일흔다섯 뉘를 맞는 경향잡지는 주교회의 기관지입니다. 신앙의 길잡이로서 신자 가정이면 한 권씩은 있어야 할 잡지입니다.

「파티마의 모후 꼬미씨음 창설 25주년 기념식 가져」

레지오 마리에 창설 60주년 및 전주교구 전례 25주년을 경축하는 기념행사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해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40여명의 교구 사제와 실대를 짊 메운 3,700여명의 각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제1부에 25년 근속자로부터 15년간의 개근자, 공로자들 108명에 대한 시상을 겸한 기념식을 가졌고, 2부에 김 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된 경축미사에 이어 3부에는 각 본당 꾸리아벨 경연대회가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레지오 마리에의 사도적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민족복음화 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이번 대회는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대한 평신도 활동에 좋은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이날을 위해 멀리서 참가한 수원교구, 광주교구 레지오 단원들의 성의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한 교구 꼬미씨음 지도 김병엽 신부님과 이현재 단장님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따스한 손길이...

힘은 합할 수록 더 큰 힘이 되지만, 어느 곳에 쓰느냐가 문제다.

작은 힘들이 모여 큰 일을 하는 마음 뿌듯한 이야기—

큰래에 전주 시내 본당 부녀회원 방저거 회원들은 군산 옥봉에 자리한 「성인복지원(양로원)」의 할머니들에게 자녀들이 못다한 효성을 드렸다는 호뭇한 소식이 있다.

「거룩한 말씀의 시녀회」 소속 수녀님들의 봉사로 편안한 나날을 지내고 있지만 신앙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이미 성모상(전립비 80여만원)을 세운바 있었고, 지난 26일에는 새옷 30여벌과 약간의 칩구류, 수의(壽衣) 등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마련해서 2대의 버스를 타고 방문, —위문과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5월은 성모님의 달—어머님의 따스한 손길을 이렇듯 남모르게 실천하는 정겨움은 배마른 요즘의 우리네 심정을 적서주는 축축한 단비가 아닐까?

선행이 밝혀질까 부끄럽다고만 쉬쉬하는 이들에게 붉어지는 얼굴로 찬사와 격려를 드린다.

사제 세미나 기간중 바빴던 성무집행

본당 신부님이 안계실 때 으레 긴급한 성무가 더 생긴다는건 우리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가 보다. 이번 신부님들 세미나 동안은 각본당에서 유달리 긴급한 일이 많았고, 주교님까지 수고하셨단다. 혼인, 병자 성사가 12건, 장례 미사, 예철이 21건이나 되었다. 수고해 주신 주교님, 박성운 신부님, 이상호 신부님, 김병운 신부님께 늦게나마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감사합니다

지난, 사제 생활 쇄신 집중 세미나의 성공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교구 사제단—

요심이 (408) 김병오



보사부 허가제품 「토롱진액」

안 내

저희 업소에서는 금번 보사부 식품허가(제10호)를 받은 토롱진액을 형제 자매분에게 특별우대 공급코저 합니다.

당 「토롱진액」은 종전의 토롱탕에 비해 60배의 고농도로 저희 업소에서만 취급하는 허가식품임을 감안, 많은 애호를 양원합니다.

효능 : 당뇨병, 간질환, 위장질환, 결핵, 고혈압, 저혈압, 부인병, 요통, 발육부진, 만성피로.

한국토롱연구소

이리직매장(2-2102)

(이리전재-제일극장 중간)

대표 유경옥(베로니카)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 신장개업
금 · 은 · 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시 중앙로 1가 경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② 2 5 1 3

한 철 재 (비오)

신부화장 · 파마 · 교우분들
특별우대

데레사 미용실

경기전 앞 ② 1 7 0 3

범 데레사(순례)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시사항

-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성월 기도문 기도서 21면
- 대학생 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미사 및 합창단 창립총회 : 6월 2일 오후 5시 30분, 회관
- 꾸르실리스타 동창회 : 여성 9. 11. 12차. 일시-6월 14일 오전 10시. 장소-센타 강당. 회비-2,000원
- 제 3 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6월 6일 오전 9시, 장소-이리 원광중·고 교정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보좌 김종환
보좌 신부 박인범
사도 회장 김병구

1. 사도회 월례회 : 6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본당 신부님 방. 회장, 고문, 감사, 구역장, 반장, 각 신신단체장 꼭 참석 바랍니다
2. 사도회 임원회 : 6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각 분과 위원장님은 임원회에 참석바랍니다
3. 방ziger 삼회 : 오후 2시 강당
4. 성심 부녀회 총회 : 6월 5일(금) 어머니미사후
5. 견진행사
① 6월 7일(일) 성신강림 주일 10시30분 교중미사
② 견진교리-5월 27~29일, 6월 3~5일까지 오전반-10시 30분, 오후반-7시 30분
6. 쉼 지도위원회 : 임시총회 5월 31일(일) 오후 4시 각 신부님 방
7. 사제양성 후원금 : 금일까지 사무실에 보내주시시오
8. 부활 삼종은 성심 강림 전일까지 합니다

(노송동)

전화 ③7032번

주임 신부 김 정 원
사도 회장 박 춘 근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유아 영세식 : 6월 6일(토) 오후 2시(시간 엄수) 대부모님을 꼭 모시고 오세요
 3. 베소라 성서 강의 : 매주(화) 오후 8시~10시까지
 4. 수녀님들을 위한 베소라 성서 특강
 5. 금주의 성경읽기 : 신약의 베살로니카 전 후서, 디모테오 전 후서
 6. 레지오 25주년 기념 행사에 협조하신 분 사도회 10만원, 노인석 회장님 5만원, 윤감동씨 1만원, 감사드립니다
 7. 아파트 공소견립 기금 : 감사합니다 안루치아 3만원, 김이사안 50만원, 정아네스 5만원 민유스티나 1만원, 최필모네나 10만원
 8. 자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219,245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유 영 양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첫침례 7 : 6월 6일(토) 오후 8시 꾸르실리스타 모임-미사후에 있음
 3. 복자 부녀회 월례회 : 6월 1일(월) 오전 10시
 4. 예비자 교리 : 매주(화) 저녁미사후-보좌신부 지도
 5. 매주일 공식미사후-히 데레사씨 지도
 6. 봉헌금 매주 미수 없도록 완납합니다
 7. 성당에서 몸가짐을 단정히 합시다
 8. 미사에 늦지 않도록 : 10분전까지 오세요
 9. 미사시간 변경 : 아침-5시 30분(6시에서, 주일과 수요일)
- ※ 지난 부활절에 영세하신 분들 고백성사 6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26,700원

(복자)

전화 ③5238번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김 희 조
사도 회장 김 성 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후
 2. 첫침례 7 : 6월 6일(토) 오후 8시 꾸르실리스타 모임-미사후에 있음
 3. 복자 부녀회 월례회 : 6월 1일(월) 오전 10시
 4. 예비자 교리 : 매주(화) 저녁미사후-보좌신부 지도
 5. 매주일 공식미사후-히 데레사씨 지도
 6. 봉헌금 매주 미수 없도록 완납합니다
 7. 성당에서 몸가짐을 단정히 합시다
 8. 미사에 늦지 않도록 : 10분전까지 오세요
 9. 미사시간 변경 : 아침-5시 30분(6시에서, 주일과 수요일)
- ※ 지난 부활절에 영세하신 분들 고백성사 6월 6일 오후 6시 30분에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26,70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형 수

1.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2. 예비신자 교리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주일학교 교리 : 토요일 오후 2시-교리, 미사-3시
 4. 유아세례 : 다음주 공식미사 전 30분에 있습니다
 5. 미사시간 변경 : 아침-5시 30분, 낮-10시, 밤-8시
 6. 교무금을 5월분까지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성당 2층 계단 증축 : 예비신자인 전수길씨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중(감사합니다)
 8.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차상열 ②박형석 신자들의 기도-정형석
- 지난주 봉헌금 : 192,640원 교무금 : 68,000원

(숲정리)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사도회 월례회 : 6월 7일 공식미사후
 2. 누깅다 부녀회 월례회 : 6월 6일 10시
 3. 이번 주일학교 후원회 : 6월 5일 오후 3시로 변경
 4. 매주 공식미사후 : 새성가 한곡씩 배울시다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귀래, 독서-송용호·김경주, 기도-이종욱
 6. 수녀원 내부시설비 : 익명 20만원(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23,400원
사제양성 후원금 : 208,142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 병 영
보좌 신부 박 병 준
사도 회장 이 증 두

1. 글라라 형제회 : 오후 1시 30분
 2. 유아세례 : 다음주(6월 7일) 8시 30분 미사후
 3. 중·고생 춘계소풍 : 6월 7일, 학생 미사후 장소-구이저수지
 4. 성가정회 : 6월 1일 오후 2시
 5.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태 ②배양길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①김병오 ②오공천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이승호 ②김동수
 6. 루르드 성모상을 새로 단장해 주신(김옥래, 혼배용 카펫트를 마련해 주신 장광우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7. 성도의 밤 행사 : 오늘(31일) 저녁미사후
 8. 사제양성 후원저금통을 속히 내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463,78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유아세례 : 오늘 오후 3시 미사후
 2. 오는 6일은 기사회의 날입니다 미사-오후 4시 ※ 밤미사 없음
 3. 사도회 월례회 : 차주 밤 8시 미사후
 4. 사순절 사제양성을 위한 저금통 : 오늘까지 가져 오 기시 바랍니다
 5. 오늘 최 수녀님 영명축일 :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성모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 매월말 주일은 성모회 월례회의 날
- 지난주 봉헌금 : 128,800원 교무금 : 162,000원

광주 사태에 대한 진상

오월은 싱그럽고 아름다운 달이다.

그러나 80년 5월은 6.25이후 가장 참혹한 민족사의 비극이 일어났던 대 참변의 달이다.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띤 국군과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동족의 유혈 충돌로 빚어진 엄청난 광주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도민은 물론 양식있는 전 국민들의 비통을 자아내게 하는 이 사태는 비상계엄이라는 너울 속에 정부 당국의 거짓된 발표와 통제된 언론의 편양 보도로 인하여 철저히 왜곡되고 있음을 광주 시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도된 국민으로부터 자업자득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질시의 눈초리를 당하고 있다. 거짓은 폭로되고 진실은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양심과 신앙의 충동에 따라 사태의 진상을 전 국민앞에 발표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 사태로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한맺힌 광주 시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전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한다.

—평화적인 학생 데모—

비상 계엄이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 광주시 대학가는 교내 시국 성토대회를 벌리다가 <민주화 시국 성회>를 갖기 위해 전남 도청앞 분수대에 모였으며, 이후 전남대를 비롯하여 10개의 대학 전문 학생 3만여명이 대규모 집회 및 행진 행렬로 시위를 벌였다. 많은 학생 데모였지만 평화적인 것이었고, 경찰과의 충돌조차 없었으며 질서정연하게 민주화를 추구하는 의사 전달식이었다. 학생들은 이 집회로서 그동안의 시위를 끝내고 정부 당국의 성의있는 답을 기다리며 수업에 전념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 평화적인 시위가 왜 참담한 살육이 자행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으로 돌변하고 말았을까? 그 진범은 누구일까?

—공수 특전단의 만행—

반일의 휴교 조치에 대비하여 학교 앞에 모이기로 사전 합의한 전남대 학생들은 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되고 데모 주동학생들이 체포되던 5월 18일 아침 교내로 들어 가려다가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투석전을 벌였다. 계엄군에게 쫓겨난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 나와 연좌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최루탄과 경찰봉으로 해산시키려 하자 다시 투석전이 벌어졌다. 경찰력으로 진압이 실패되자 오후 3시경 공수부대를 투입시켰다. 착검한 M16에 방뱃이로 무장한 공수대원들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남·여 학생들을 붙잡아 방뱃이를 휘둘러 마구 난타했다. 뒷통수를 맞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쓰러진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보도보루를 깨서 돌을 만들어 집어 던졌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도 불쌍한 학생들에게 군화발로 짓밟거나 기압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다시 방뱃이를 휘둘렀다. 반항하는 경우 M16에 쏘는 칼(대검)로 등과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러 그었다. 피흘리는 학생들을 굴비처럼 엮어 군인트럭에 싣고 갔으며, 통금이 밤 9시로 단축된 것이 발표되자 귀가하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까지 무조건 두들겨 패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들까지 개머리판으로 마구 때렸다.

다음날(19일), 시내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술렁대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금남로 일대에 이루 셀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으며, 이날 아침 몇명 되지 않는 공수부대원들은 어제와는 달리 모여드는 학생과 시민들을 쫓았다. 그러다가 데모 학생들이 물러들자 붙잡아 옷을 벗기어 길거리에 꿰어 앉혔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을 계속 구타했다. 공수대의 잔인성을 직접 목격한 군중들은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가택수색까지 해가며 학생들을 붙잡아 갔고, 얻어 맞아 택시에 실려가는 학생들까지도 차에서 끌어 내려 두들겼으며 심지어는 운전수들까지도 두들겨 패다. 흥분된 시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자 남녀노소를 구별치 않고 구타하거나 대검으로 난타했다. 칼로 옆구리가 찔린 학생과 등이 X자로 그어있는 시체가 추후에 확인되었다. 이때 체포된 학생수가 927명이라고 계엄사는 발표했다.

양 이틀간의 무자비한 공수대의 만행은 많은 시민을 데모에 가담케 했으며, 군중의 분노를 가열케 했다.

—데모 대의 무장 경위—

공수대의 만행과 체포가 그치자 시민들이 가족을 찾아 각 병원 응급실, 시체실을 메웠다. 그런데도 계엄사는 20일 민간인 사망자 1명, 계엄군 사망자 4명이라고 발표하여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일부 시민들은 공수대원들의 무차별 만행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시내버스, 택시 운전사들이 차를 몰아 도청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지키고 있는 군경을 향해 돌진해 갔다가 최루탄에 의해 밀려났다.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들로 차도와 인도가 가득 찼고, 시민들은 함성과 시위를 벌였다. 아세아 공장에서 남품하려던 장갑차와 군용 쥘과 트럭을 빼앗아 계엄군을 향해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다가 연이은 총성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쓰러졌다. 여러대의 헬기가 상공을 배회했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남의대를 비롯한 3개의 종합병원, 182개의 개인병원으로 총상자들이 분산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총소리에 쫓겨 놀란 시민들은 꺾꺾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숨을 곳을 찾아 나서자 거리는 텅 비어 버렸다.

벤주막으로 대항하던 시민들은 이에 대항할 무기의 필요성을 깨달아 화순을 비롯한 인근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 예비군용 총기, 실탄, 수류탄, 화순탄광에서 사용하는 T.N.T를 빼앗아 시내로 모이자 시가지는 완전 전쟁상태로 돌변했다. 총을 든 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은 외곽으로 퇴각했으며, 이때도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밤새껏 쉬지않고 총소리가 났으며 밤에는 도청이 데모 군중에 의해 점거당했다.

—도청 철수 이후의 광주 상황—

학생들 스스로 시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점거된 도청이 학생들의 임시본부가 되자 도청앞 광장과 금남로 시가는 인파로 물렸으며 다시 질서있게 “시민 쉼기대회”를 가지며, “계엄 철폐”,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구속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종교계, 학생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수습위원회가 스스로 구성되었다. 수습위원들은 더 이상의 유혈상태를 막기 위하여 계엄군의 시내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무기 수거에 나섰다. 시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신임 박총리는 광주 상공을 헬기로 정찰하고 계엄사 전남북 본부에만 들러 상황을 청취한 뒤 일방적인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여 시민을 경악케 했다. 수습위원들의 활동으로 총기와 실탄이 상당수 회수되었다. 수습위원회가 요구조건을 내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본적인 수습을 위해 최태통령이 광주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보상과 추후 정치적 회복을 없앨 것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공개 천명토록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 계엄사는 약속을 어기고 시내 무장 진주를 시도하자 학생들은 수거한 무기를 다시 분배 무장했다. 계엄군이 진주할 경우 시가지가 피로 물들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수습위원들은 비폭력의 죽음으로 항거하자고 결의하여 탱크앞까지 죽음을 행진을 했다. 계엄군이 양보하여 퇴진했고, 계엄사와 수습위원이 다시 회동했다.

사태수습이 사령관의 권한 밖임을 암시받자 수습대변인이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 유혈사태를 우려하던 수습위원들의 인내와 수고가 무시된 채, 5월 27일 새벽 2시 섬광탄을 쏘고 총격전이 전개되어 유혈이 흐르는 가운데 계엄군이 다시 시가지를 장악했다. 계엄사는 이날 유혈진압에 17명의 사망자 뿐이라고 했지만 섬광탄에 희생되거나 총상을 입어 사망한 수는 새벽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는 기회가 계엄군의 성급한 진군으로 유혈진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피를 부르며 시가지를 장악한 계엄군은 마치 적진을 탈환한 것 같은 승리감에 차 있었다고 아사시 신문은 전한다. 피를 머금은 땅은 흔적이 없듯이 열흘동안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함성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광주사태는 민주시민의 긍지를 역사가 평가하여 줄 때가 오리라 믿는다.

— 폭도는 누구인가? —

사태가 수습되었다는 당국의 발표를 듣고 “폭도”, “난동자”, “불순분자”, “극렬분자”에 의해 파괴되었을 법한 광주시를 찾아온 외래객들은 너무나도 평온한 시내의 분위기에 의아심을 갖는다. 파괴로 휩쓸린 도시가 아닌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사태중 광주 MBC, KBS, CBS 방송국들과 두개의 신문사는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과 메스컴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사상자 수에 대한 허위 보도, 시민들을 무장 폭도 및 난동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시민들의 분노를 사 파괴 및 방화되었다. 많은 총기가 탈취당했는데도 몇건의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은행 강도도 없고, 전기 수도가 공급된 것은 시민의 수준이 높은 증거라는 외신기자의 말에 공감을 느낀다. 남아 대학생들이 치안대를 조직하여 은행과 농협 쌀창고를 지켰으며, 일부 지각없는 청년들의 횡포를 신속 정확하게 막았다 한다. 광주 경찰서 현관과 벽에는 “본 경찰서는 우리의 재산, 기물 파괴는 세금의 과중, 스스로 보호합시다. 학생일동”이라는 표어가 붙어 있었다. 계엄군이 외부와 통신 교통을 차단시켜 생활필수품과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도 매점 매석 행위나 폭리를 취하는 자가 없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사태속에서도 서로 식량을 나누어 먹었고, 총상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여 피가 부족하게 되자 헌혈하는 시민들의 수가 무한히 늘어서 지금도 헌혈받은 피가 남아 돌고 있다. 부녀자들은 대모대원들에게 스스로 음식과 약품을 제공했고, 배고파하는 계엄군들에게도 미음을 잇은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3명의 간첩협박자를 잡았다. 소위 치안부재의 10일, 곳곳에 흩어진 돌멩이, 유리, 최루탄 파편을 쓸어 내는 시민들, 총격의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를 운반 간호했던 의사, 간호원들, 생명을 내어 맡기며, 젊은이를 보호했던 운전사들, 어느때 보다는 가장 신랄했던 세칭 부랑아와 버림받은이들, 방망이를 휘둘 공수대원 앞에 너무나 쉽게 쉽게 울어버린 어느 아낙의 따스한 마음. 파괴와 방화를 하지 말라며 만류하던 우리 모든 광주 시민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폭도들의 것이 아니다. 저들이 불순분자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불순분자와 폭도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연행, 체포의 위협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광주시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주시민의 긍지를 마음속에 갖지만 응어리진 마음은 풀리지 않은채 이재민에게 처럼 보내지는 구호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다.

군은 이상과 같은 한국 근대사상 유래없는 유혈사태를 유발하여 놓고 그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체의 보도를 통제하고 사실을 은폐하므로써 광주시민들과 우리 국민 전체의 가슴에 피맺힌 한을 남겨 놓았다. 더욱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잔인한 난행에 대해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1980. 6. 4.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단

성 명 서

우리는 민족적 비극인 광주사태에 접하여 복음적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그 태도를 밝힌다.

1. 우리는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단이 발표한 “광주 사태의 진상”이 진실임을 믿는다.
2. 당국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 더 이상 사실을 왜곡 허위 보도하는 현 작태를 즉각 포기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
3. 광주 사태의 비극적 원인은 현 정부와 일부 군부의 광적인 살인행위에서 기인한 것임을 천명한다.
4. 현 사태는 민족적 치유가 요구된다.

비상계엄 해제와 구속된 민주시민, 학생들의 석방이 즉각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 헌정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단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부산교구 사제단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
 천주교 마산교구 사제단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단
 천주교 춘천교구 사제단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천주교 청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서울교구 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
 천주교 대구교구 사제단
 한국천주교 정의 평화 위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전국협의회
 한국 가톨릭 노동 청년회
 한국 가톨릭 농민회
 남자선교수도회 장상 연합회
 여자수도회 장상 연합회